

시련의 20세기는 가라! 희망의 새천년이 왔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세기의 지루한 터널 ○
 - 을 지났다. 그렇다고 새로운 세기가 절망적이지 ○
 - 만은 않다. 겸허하게 준비하고 새로운 천년을 ○
 - 시작해야 한다. ○
 - 신경북일보는 새천년을 시작하는 길목에서 ○
 -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신바람 지킴이」들 ○
 - 을 찾아 조명하고 다음 세기를 준비하는 캠페인 ○
 - 을 벌인다. ○
- <편집자주> ○

경제 매비시킨 'IMF 한파'

씨 랜드 참사·호프집 화재

탈도 말도 많았던 지난 세기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긴 터널을 힘겹게 빠져 나온 생채기 투성이인 우리사회는 새천년의 출발선상에서 그래도 밝고 건강한 사회로의 회귀 희망이 넘쳐난다.

기업의 연쇄 도산, 중산층 붕괴 등을 물고와 사회의 기틀을 뒤흔든 IMF.

길거리로 내몰린 근로자들이 점차 줄어들고

그들이 있기에 그나마 이 사회가 지탱되고 있다.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각박해진 사회에 그래도 훈훈한 미담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의 소식이 전해지면 성금의 손길이 잇따르고 남몰래 수년, 수십년째 많지 않는 박봉을 쪼개 「나눔의 철학」을

경제가 어떻게 되든 과소비가 편을 치는 진흙탕속에서 한판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알뜰주부가 밝은사회를 햇볕을 밝히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갈곳을 잃고 방황하며 무료급식소에 줄을 서는 실업자와 노인들.

이들을 보살피는 단체와 독지가들이 있기에 다소나마 추위와 배고픔을 달래고 있다.

밝고 건강한 사회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온갖 사회병리현상 속에서 그래도 이를 치유하고자 노력하는 건강사회 지킴이들이 버티고 있고 이같은 노력이 확산되고 있기에 희망적이다.

희망은 또 있다. 끊임없는 수련, 피나는 노력, 최선의 파이팅으로 정상에 오른 이들이 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의 결정체가 값지지 않은 가.

과도와 맞서며 한·일어업협상 등으로 막막해

'신바람 지킴이' 새천년 들여다보기



김종호

(신경정신과원장·청소년종합상담위원)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사회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나마 잘못된 잘못을 고칠수 있고 장점은 키워 나갈수 있다.

우리는 남의것을 쫓는데 급급, 우리의 중요한 것을 잃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장점을 살리는것도 중요하다.

'가정' 바로 세울때 건강사회 이룩

또한 사회의 기본인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문제 청소년들을 상담하다보면 거의가 가정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질만능주의가 물고든 지난 세기의 가정붕괴현상은 IMF로 더욱 악화됐다. 그러나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곳곳에서 가정 바로세우기 노력이 있고 그래도 살만하고 희망적인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점이 많고 열심히 노력하는 장점이 있기에 새천년에는 부정적이지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다.

최정호

(경북인력은행 고용정보실)



고용전망이 밝다. 실업자에 대한 통계가 지난해 2월 176만명, 실업률 8.5%였으나 현재 97만명, 4.4%로 호전됐다.

경북지역은 실업자 4만2천여명, 실업률 3.0%로 통계상으로는 자연실업률에 가깝다.

더군다나 경제연구소 등이 6-7%대의 고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있어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실업문제는 해결될

고용환경 '청신호' 실업문제 숨통

것으로 보인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동해안지역의 경우 99년 기업체가 요구한 구인수가 1만1천300명을 넘어 전년도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난 점과 취업자 수도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데서도 새천년의 고용문제를 밝게하고 있다. 포항철강공단의 가동률도 IMF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2000년 전국의 고용사정은 안정될 것으로 확실한다.

조혜영

(홍해공교 교사)



21세기는 강력한 경쟁력의 시대다. 이에 필요한 것은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각자가 가지는 개성과 재능을 인정하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교육과 사회여건이 될때 신바람나게 자신의 가치를 창출해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할수 있다.

전문지식 갖춰야만 살아남는다

한 인격체를 어느 한 단면만 보고 실패자로 내몰지 않는 그런 사회여건이 새로운 세기에는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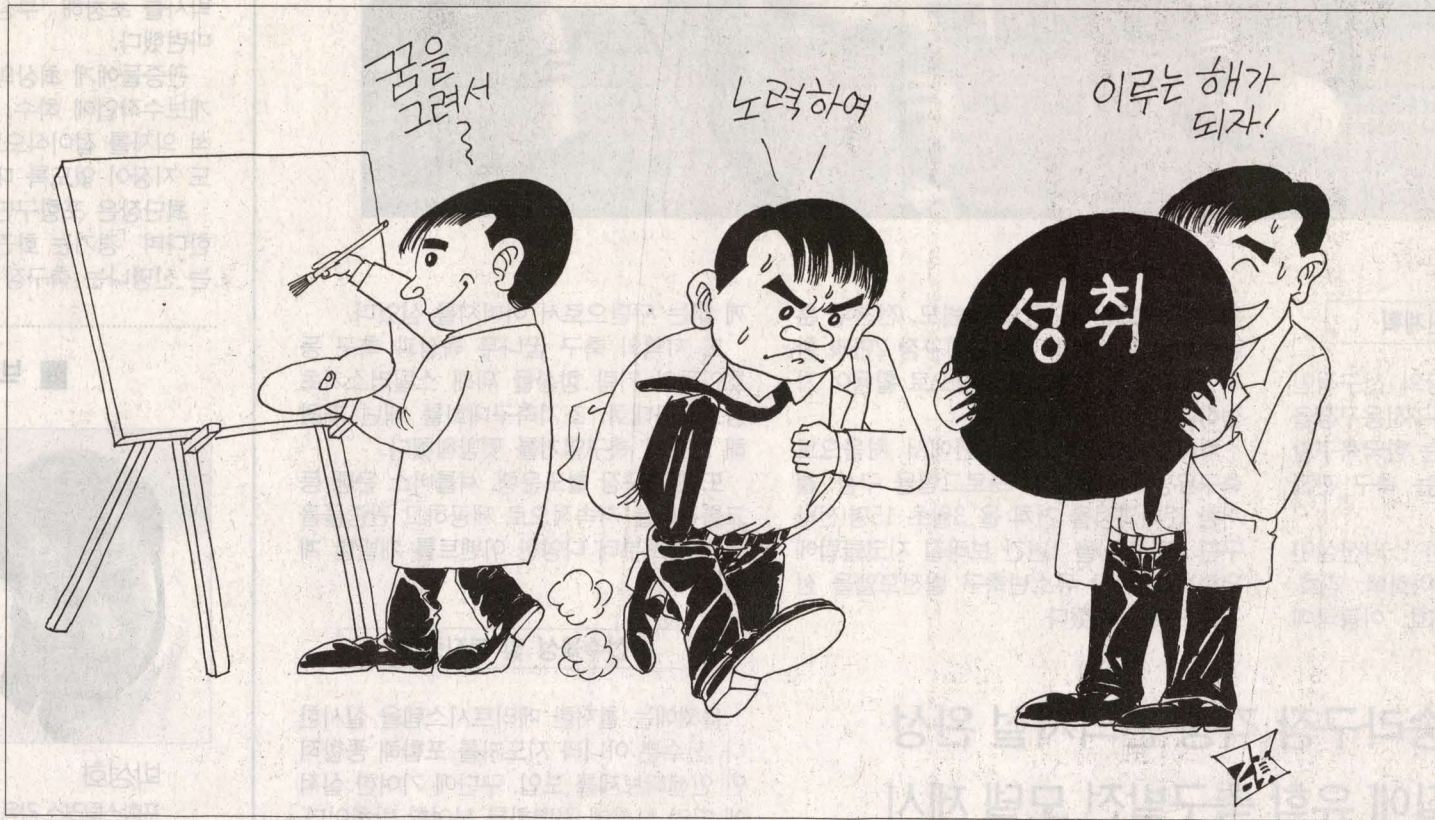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때 민족지도자로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졌던 모세는 40여년동안의 광야생활의 연단과정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최고의 인내와 겸손을 배웠다. 우리도 이런 실패와 좌절을 통해 인생 최고의 교훈인 겸손과 인내, 소망을 배워 21세기가 요구하는 두뇌강국, 한국으로 발돋움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영식기자]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기업들이 되살아 나고

붕괴된 가정 다시선다



새벽을 여는 죽도시장 사람

현장서 뛰고 있는 근로자들

이들이 있기에 사회가 있다

아직도 살만한 세상인건

건강사회 지킴이들의

값진 땀방울의 대가다

경제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붕괴됐던 가정이 정상화 되어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동안 모두들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흘린 땀방울의 대가다.

더 높은 비상의 날개짓을 하고 있는 「전사」들이 있다. 쇠물을 녹이는 등 산업일선에서 밤낮없이 뛰는 사람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죽도시장에서 새벽을 여는 이웃들, 에이즈예방 백신을 개발한 포항공대 교수팀, 우리사회는 그래도 이들 전사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

20세기 말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씨랜드 참사,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등이다.

총체적 부정이 불러온 참사 한 가운데서도 의인들은 있었다.

한명의 어린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교사, 부정의 연결고리에 의연하게 대처한 공무원.

실천하고 있는 이들이 아직도 주위에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절망보다는 희망이 있고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흔들리는 농촌, 꺾이기 쉬운 빈사지경에 이른 농촌에서도 묵묵히 땀방울을 쏟아내며 세계화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농민들이 있고,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운정을 베푸는 이들이 밝은 사회의 등불이 되고 있다.

버려지고 일탈한 청소년들을 보살피고 상담하는 건강사회 지킴이들이 사회의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고, 학교 교육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굳건히 교단을 지키는 교사들이 있다.

목숨을 걸고 다른사람의 생명을 구한 경찰관, 격투 끝에 강도를 잡은 시민들 소식이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고 있다.

허탈, 충격, 반인륜적 등 모든 부정적인 생채기를 말끔히 털어내고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해야 한다.

진 생활고의 파고를 넘는 어린이들이 밝은사회와 연관성을 맺고 있다.

이같은 밝은사회, 건강한 사회를 지키고 가꾸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새천년에는 넘쳐 나도록 해야 한다.

대학의 한 교수는 「사회구조적 모순이 병들고 나약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기강을 바로세우는 노력이 새천년에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웅비의 새천년을 멋진 「해돋이」로 맞았듯이 정말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길거리를 방황하는 실직자, 노인들이 사라지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 곳곳에서 신바람나고 살맛나는 사회,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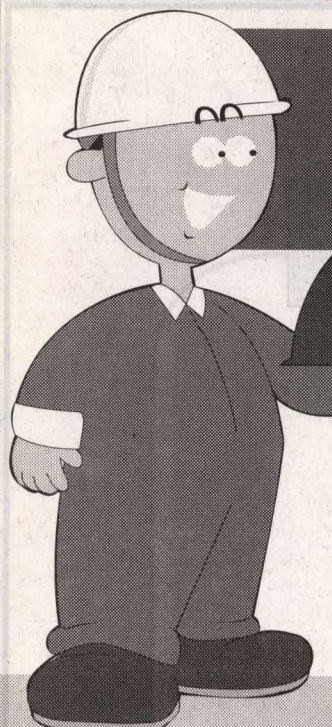
새로운 세기의 시작은 다음 세기의 준비다.

지나온 세기의 뼈아픈 교훈을 거울삼아 다음 세기의 출발점에서 또다시 생채기 투성이로 서지 않기위한 값진 땀방울을 흠뻑 흘리자.

정말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일터서, 가정서, 사회곳곳서

살맛나는 세상을 위하여...



IMF시대 극복을 위한 화려한변신

한진광고기획실사 / 현수막시스템

안전

공사장 안전용품 및 안전표지판

도로안전시설(이정표, 교통표지)

가드레일, 낙석방지, 일반윈스

다리난간, 차선도색

실사 현수막, 현수막

각종 대형 사진

조감도, 현황판

대형간판, 안내간판

경북 문경시 모전동 883-4

Tel. 05811552-3691

Fax. 05811552-3692

교통안전시설, 안전용품납품업체

한진안전공사
한진광고기획



새천년을 신는다



새천년을 향한 힘찬 첫발 ZOOM-IN

K-SWISS Classic 2000

우울스/허시파피 포항점 OPEN
(포항극장 옆 리복대리점 맞은편)
Tel: 242-4949

oo-dles' www.oodles.co.kr

